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4호> 2020년 1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 <신년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장  
나카시마 에이지 (中島英司)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2019 럭비 월드컵이 개최되어 약 17만 3천명이 오이타 스타디움에서 시합을 관전했습니다. 4강에 진출한 잉글랜드, 뉴질랜드, 웨일즈, 남아프리카 중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3팀의 시합이 오이타에서 열려 세계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눈 앞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자란 숙박여행조사 2019 ‘여행 후 종합적 만족도’ 부문에서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광청의 통계조사(2018)를 따르면 외국인 숙박객 수가 140만 명을 넘어 전체 숙박객 수가 777만명으로 과거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오이타현에서도 4월 24일, 25일에 성화 릴레이가 이어지며 올림픽의 뜨거운 기운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럭비 월드컵 개최 경험을 살려 사전캠프로 오이타를 찾는 해외 선수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의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이타의 다양한 정보를 해외로 발신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히메시마촌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쿠니사키시에 이어 이번 호는 히메시마촌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 <시간과 자연의 기적 지오파크 아마노히토츠네(天一根)>

오이타 히메시마 지오파크의 매력을 많은 분들께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희소한 유적들이 지오파크의 원점입니다.

### <히메시마 일주 지오 크루즈>

히메시마 섬을 일주하는 지오 크루즈는 오이타 히메시마 지오파크의 해역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코스 중 하나로 매년 수차례에 걸쳐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히메시마를 관찰하고 해안선을 따라 새들이 쉬는 모습이나 섬의 지형, 지층의 습곡 구조 등 오이타 히메시마의 지오파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히메시마촌 기획진흥과>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4호> 2020년 1월 발행

## 오이타 속 한국인을 만나다! 오이타국제교류플라자 최치현



###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치현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오이타국제교류플라자에서 근무하고 있고, 오이타현 외국인 종합상담센터 직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대학 시절 교환 학생으로 오이타대학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 만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계기로 오이타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 Q. 주요 업무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국제교류플라자에서는 한달에 한 번 한국어 트라이얼 수업을 개최하고 있고, 외국 교류 사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종합상담센터가 지난 6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담센터의 업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맡는 경우도 있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외국어 상담사를 소개시켜드리는 중개 역할과 상담 내용 정리 및 보고 등 전체적인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 Q. 한국어 트라이얼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의 전래동화를 소개시켜드리고 한국과 일본 전래동화를 비교하며 서로의 의견을 묻고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밖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인을 만났다면?’ 등 테마를 다양하게 설정해 상황별로 쓰이는 한국어 표현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Q.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상담이란 업무는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못하지만 그 분들의 고민거리를 함께 들어주고 최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분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조금은 도움이 되었나보다’라는 생각에 뿌듯해집니다. 상담을 받고 돌아가시면서 ‘여기 오길 참 잘했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해주실 때도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또 저도 일본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그 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때가 있고 이해도 되기 때문에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덕분에 훨씬 말하기 편했다고 말씀해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 Q. 주말이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쉬는 날에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어서 가족끼리 온천을 하러 가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공원, 수족관 등을 데려갔었는데 얼마전에 둘째가 태어나서 지금은 가사와 육아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오이타현 외국인 종합상담센터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인과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어 트라이얼 등 제가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 태어난 둘째 딸을 포함해 아이들과 가족 모두 아픈 곳 없이 건강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